

#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 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 가. 국제유가 동향

유로존 채무악화에 따른 유럽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역시 유럽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회복 지연의 여파로 전체적인 둔화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유가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란과 국제사회 간 대립양상이 격화된데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중동 석유공급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두바이 원유가격은 지난해 10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한때 배럴당 96.76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11월 들어 이란 핵개발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11월 8일에 배럴당 111.26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유럽발 경기침체 논란이 또 다시 국제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면서 12월에는 두바이 유가가 100.96달러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와 이라크에서의 정정불안 문제가 석유시장을 자극함에 따라 두바이 원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들어 배럴당 120달러 대로 치솟는 등 2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2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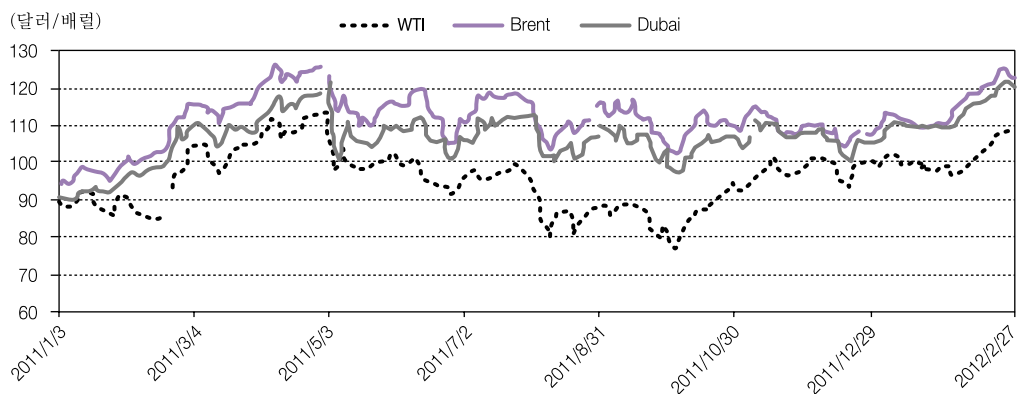
한편, 2011년 평균 원유가격은 브렌트와 두바이가 각각 배럴당 111.08달러와 105.98달러로 연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WTI는 95.10달러로 2008년에 기록한 99.92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WTI와 브렌트 원유 간 가격 역전현상은 지난해 브렌트의 WTI 대비 가격프리미엄이 배럴당 27달러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10달러 대로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는 10~15달러 범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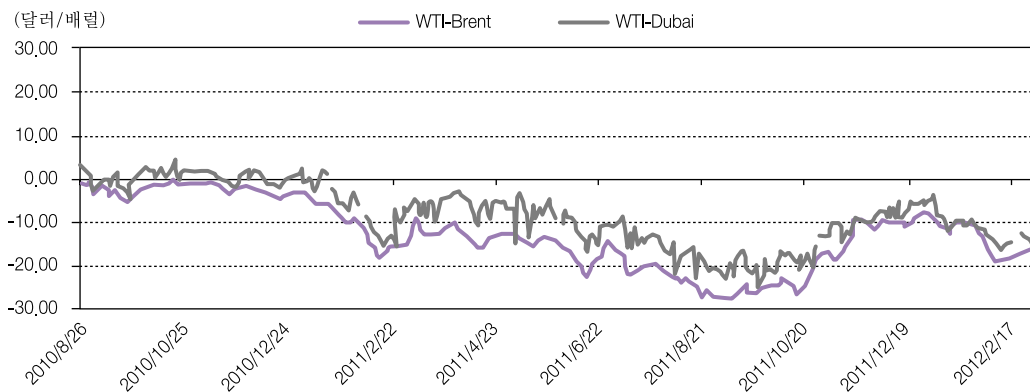
###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국제 석유시장의 주요 논쟁거리는 수요와 공급 중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닌 '약하냐'이다. 2012년 들어서도 이러한 줄다리기가 싸움

[그림 1] 국제 원유가 추이



[그림 2] WTI-discoat 추이



〈표 1〉 2010~2012년 국제 원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 유종  | 2010  | 2011   |        |        |        |        | 2012   |        |        |
|-----|-------|--------|--------|--------|--------|--------|--------|--------|--------|
|     |       | 1/4    | 2/4    | 3/4    | 4/4    | 평균     | 1월     | 2월     | 평균     |
| 두바이 | 78.13 | 100.84 | 110.34 | 106.95 | 105.69 | 105.98 | 109.52 | 116.18 | 113.02 |
| 브렌트 | 79.66 | 105.56 | 116.96 | 112.75 | 109.18 | 111.08 | 111.02 | 119.31 | 115.17 |
| WTI | 79.49 | 94.56  | 102.29 | 89.51  | 94.12  | 95.10  | 100.38 | 102.28 | 101.33 |

주: 2012년 평균은 2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지속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위축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공급에서는 이란발 지정학적 마찰로 인한 중동 원유의 공급차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세계 석유수요 둔화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유럽의 채무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 개도국들에게도 이러한 여파가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1월 초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주요 9개국<sup>1)</sup>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피치(Fitch) 역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유로존 5개국<sup>2)</sup>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1~2단계 강등시켰다. 2월에는 무디스가 유로존 6개국<sup>3)</sup>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을 역시 1~2단계 강등시키면서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로존 시한폭탄의 첫 번째 뇌관인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었던 것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스가 이미 1차 구제금융으로 1,100억 유로(약 160조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을 그리스가 이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차 구제금융안은 1,300억 유로(약 190조원) 규모로 유로존 기금조성의 핵심인 독일이 짊어져야 할 부담감이 커졌으며, 이 때문에 최근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강도 높은 예산긴축과 사회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수혈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다면 유럽 전역은 견잡을 수 없이 연쇄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져 세계가 보다 깊고 긴 경기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하더라도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된 공핍정책(austerity policy)의 영향으로 유럽의 경제가 일정기간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 인도, 남미, 중동 등의 신흥 경제국들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높은 물가 압력과 함께 수출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기구(IMF)는 1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8%로 2010년(5.2%)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으며 2012년에는 3.3%로 둔화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결국 석유수요에도 반영되어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하는 석유 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 2월호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석유수요는 89.1백만b/d로 전년대비 0.7백만b/d(0.8%)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세계 석유수요는 89.9백만b/d로 2011년대비 0.8백만b/d(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1월호에서 전망된 2012년 석유수요보다 0.2백만b/d 줄어든 것으로 유럽 경제의 심각성과 비OECD 국가로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석유수요는 이미 2011년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에

1)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몰타

2)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3)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중국 역시 6%를 넘는 높은 소비자물가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소비지출 감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 이어 다시 9%대로 떨어지면서 석유수요는 0.4백만b/d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2년에도 경제성장 둔화로 석유수요 증가수준 역시 2011년과 비슷한 0.4백만b/d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세계 석유수요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둔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둔화세는 최근 이란 문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어떻게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처하는가에 따라 올해 세계 석유수요의 진행경로와 국제유가의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계 석유공급 측면에서 지난해 리비아 사태에 따른 후유증과 이란발 공급 차질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석유수급은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공급에 1.2백만b/d 수준의 막대한 차질을 빚은 가운데 비OPEC 석유공급도 2010년보다 0.1백만b/d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0.6백만b/d의 공급

〈표 2〉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 구 분        | 2010 | 2011 | 2012 |
|------------|------|------|------|
| 경제성장률(%)   |      |      |      |
| 전 세계       | 5.2  | 3.8  | 3.3  |
| 선진국        | 3.2  | 1.6  | 1.2  |
| 미국         | 3.0  | 1.8  | 1.8  |
| 유로존        | 1.9  | 1.6  | -0.5 |
| 일본         | 4.4  | -0.9 | 1.7  |
| 신흥/개도국     | 7.3  | 6.2  | 5.4  |
| 독립국가연합     | 4.6  | 4.5  | 3.7  |
| 중국         | 10.4 | 9.2  | 8.2  |
| 인도         | 9.9  | 7.4  | 7.0  |
| 브라질        | 7.5  | 2.9  | 3.0  |
| 중동/북아프리카   | 4.3  | 3.1  | 3.2  |
| 소비물가상승률(%) |      |      |      |
| 선진국        | 1.6  | 2.7  | 1.6  |
| 신흥/개도국     | 6.1  | 7.2  | 6.2  |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IMF(2012.1)

부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부족은 결국 재고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세계 석유 재고 수준은 지난 5년 평균치(2006~2010)를 하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세계 석유수요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공급은 재고수요를 감안하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sup>4)</sup>

여기에 이란발 석유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리비아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이 겪었던 석유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진행이 유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EU는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ty Act)에 이란 원유 대부분의 수출 결재를 담당하는 이란중앙은행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EU는 회원국들의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

〈표 3〉 이란의 주요 원유수출국(2011년 1월~6월)

| 국 가   | 수출량(천b/d) | 점유율(%) |
|-------|-----------|--------|
| 이탈리아  | 183       | 7.4    |
| 스페인   | 137       | 5.6    |
| 프랑스   | 49        | 2.0    |
| 그리스   | 20        | 0.8    |
| 독일    | 17        | 0.7    |
| 영국    | 11        | 0.4    |
| 네덜란드  | 33        | 1.3    |
| EU 합계 | 450       | 18.3   |
| 중국    | 543       | 22.1   |
| 일본    | 341       | 13.9   |
| 인도    | 328       | 13.3   |
| 한국    | 244       | 9.9    |
| 기타    | 552       | 22.5   |
| 합계    | 2,458     | 100.0  |

자료: EIA

4) 2. 세계 석유수급 동향'의 '다. OECD 재고동향' 참고.

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실질적 이란 원유제재는 빠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7월 1일부터 이란 원유금수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세계 석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 추세가 이란 문제에 따른 석유수급 영향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서방국가들의 이란 원유금수조치에 따른 효과가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따른 석유공급 차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란이 2011년 수출한 원유는 평균 2.5백만b/d 수준으로 리비아의 과거 원유수출량을 크게 압도하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는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란 원유수입량 축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예외(exemption)'<sup>5)</sup>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EU만이 이란 원유를 전면 금지할 공산이 높다. 또한 이란 역시 보복조치로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 법안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유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강수를 두더라도 남미 등 반미 정서를 가진 지역이나 중국과 인도 등으로 가격할인을 통해 원유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란의 원유수출 차질규모는 최대 0.5백만b/d 이상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리비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원유수출 차질 규모가 1.2백만b/d였음을 감안하면 그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유가 상승세는 이란 사태가 무력충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 3차 오일쇼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석유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은 미국과 유럽이 모두 전쟁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의치 않고, 이란 역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측면에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이란 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란이 미국과 유럽에 핵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조소스럽게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별기용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IAEA의 이란 핵사찰 결과에 따라 핵협상 재개 가능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와 수단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부분적인 공급차질 문제도 연초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송유관에 사이펀(siphon)을 몰래 연결하여 석유를 빼내는 석유절도가 심각하여 송유관에 연결된 사이펀을 제거하기 위해 석유생산 일부가 중단된 상황이며, 수단에서는 북수단을 통과하는 송유관 사용료 문제와 남수단이 생산하는 석유수입에 대한 분배를 두고 남수단과 북수단 간 갈등이 심화되어 남수단의 석유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로 악화되는 등 석유공급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5)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ty Act)의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재를 면제(waiver)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이란중장은행과의 거래를 '의미 있게(significantly)' 축소한 경우에도 제재의 예외(exemption)를 인정도록 재량권을 위임한 가운데 '의미 있는 축소'의 가이드라인을 18%로 제시한 바 있음.

한편, WTI와 브렌트 또는 WTI와 두바이 원유가격 간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 미국 내륙의 원유수송 네트워크의 불균형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내륙지역의 원유수송은 대부분 송유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송유관의 방향이 주로 캐나다와 미국 걸프해안으로부터 중서부 내륙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유를 미국 내륙의 정제시설로 운송할 수 있는 송유관 용량과 내륙에서 걸프해안의 정제시설로 운송할 수 있는 송유관 용량 간의 불균형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의 석유제품 소비 감소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정제시설 가동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내륙으로 유입되는 원유를 제때 소비하지 못해 내륙지역인 오클라호마 쿠싱(Cushing) 지역의 원유재고가 급증하였다. 쿠싱은 WTI 원유의 집산지로서 지난해 4~5월 사이에 재고수준이 사상 최고치인 42백만 배럴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즉, 캐나다 오일샌드 및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 증대로 미국 내 원유유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감소하고 상황에서 원유를 걸프해안 정제시설로 돌릴 수 있는 송유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중부 내륙지역의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WTI 원유가격이 리비아 사태와 아시아 석유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브렌트와 두바이 원유 가격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2. 세계 석유수급 동향<sup>6)</sup>

###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서 2011년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 대비 0.7백만b/d 증가한 89.1백만b/d로 집계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89.0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2.2백만b/d 증가하였으나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국채과다 문제가 본격화된 2분기부터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분기와 3분기 세계 석유수요가 각각 87.9백만b/d와 89.5백만b/d 전년 동기대비 각각 0.4백만b/d 증가하는데 그친데 이어 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89.8백만b/d로 세계 석유수요가 정체되었다.

권역별로는 OECD의 석유수요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OECD 석유수요는 증가세가 201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OECD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0.5백만b/d 감소한 45.6백만b/d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와, 그리스의 부도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0.3백만b/d 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반면 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0.1백만b/d의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석유화력발전 수요가 많아진 일본과 호주에서 석유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OECD의 2011년 석유수요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백만b/d 증가한 43.4백만b/d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증가폭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통

6)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Monthly Oil Market Report와 미국 EIA의 미국 석유재고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함.

화완화 정책으로 물가압력이 커진 데 더하여 개도국들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IMF는 2011년 개도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를 넘어선 반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7.3%에서 2011년 6.2%로 둔화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분기별 비OECD 석유수요는 1분기에 42.7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1.9백만b/d 증가하였으나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43.3백만b/d와 43.6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1.1백만b/d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에는 1.0백만b/d 증가한 44.1백만b/d를 기록하여 증가폭이 더욱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0.7백만b/d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OECD 석유수요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가 0.4백만b/d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2010년에 1.0백만b/d 석유수요 증가를 나타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1년 중국 석유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은 기록적인 물가압력과 경제성장률 둔화, 그리고 유류보조금 삭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동과 남미, 그리고 구소련 지역의 2011년 석유수요는 각각 0.2백만b/d씩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 세계 석유수요는 2011년보다 0.8백만b/d 증가한 89.9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가운데 OECD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0.4백만b/d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비OECD에서의 석유수요 증가는 1.2백만b/d로 증가세 둔화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의 3.8%보다 낮은 3.3%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 평균 1.6%로 둔화된데 이어 올해에는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평균 6.2%를 기록하였으나 올해에는 역시 5.4%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석유수요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세계 경제추세를 반영하여 분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석유수요의 확대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의 석유수요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0.1백만b/d 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OECD에서는 북미와 유럽지역의 석유수요가 미국과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대비 0.1백만b/d와 0.3백만b/d 감소하여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후쿠시마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영향이 유지됨에 따라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1백만b/d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OECD에서는 아시아의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0.6백만b/d 증가하여 비OECD 전체 증가분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분이 지난해와 같은 0.4백만b/d로 아시아 증가분의 2/3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들의 수입증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수요도 전년대비 각각 0.2백만b/d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난해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추가 소요사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표 4〉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 구 분    | 2010 | 2011 |      |      |      |      | 2012* |      |      |      |      | 연간 증감*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1    | '12  |
| 북미     | 23.8 | 23.8 | 23.3 | 23.6 | 23.3 | 23.5 | 23.3  | 23.1 | 23.6 | 23.5 | 23.4 | -0.3   | -0.1 |
| 유럽     | 14.6 | 14.2 | 14.1 | 14.7 | 14.1 | 14.3 | 13.7  | 13.6 | 14.3 | 14.1 | 13.9 | -0.3   | -0.3 |
| 태평양    | 7.8  | 8.3  | 7.1  | 7.7  | 8.3  | 7.9  | 8.6   | 7.4  | 7.6  | 8.1  | 7.9  | 0.1    | 0.1  |
| OECD계  | 46.2 | 46.3 | 44.5 | 45.9 | 45.8 | 45.6 | 45.6  | 44.1 | 45.5 | 45.7 | 45.3 | -0.5   | -0.4 |
| 아시아    | 19.5 | 20.3 | 20.2 | 19.7 | 20.6 | 20.2 | 20.6  | 20.9 | 20.5 | 21.4 | 20.8 | 0.7    | 0.6  |
| 중국     | 9.1  | 9.5  | 9.5  | 9.3  | 9.7  | 9.5  | 9.7   | 9.9  | 9.8  | 10.2 | 9.9  | 0.4    | 0.4  |
| 중동     | 7.8  | 7.6  | 8.0  | 8.5  | 8.0  | 8.0  | 7.8   | 8.2  | 8.6  | 8.1  | 8.2  | 0.2    | 0.2  |
| 남미     | 6.3  | 6.3  | 6.5  | 6.7  | 6.5  | 6.5  | 6.4   | 6.6  | 6.8  | 6.7  | 6.6  | 0.2    | 0.2  |
| 구소련    | 4.5  | 4.5  | 4.6  | 4.8  | 4.9  | 4.7  | 4.6   | 4.7  | 4.9  | 5.0  | 4.8  | 0.2    | 0.1  |
| 아프리카   | 3.4  | 3.4  | 3.3  | 3.3  | 3.4  | 3.3  | 3.5   | 3.5  | 3.5  | 3.6  | 3.5  | 0.0    | 0.2  |
| 유럽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0    | 0.0  |
| 비OECD계 | 42.1 | 42.7 | 43.3 | 43.6 | 44.1 | 43.4 | 43.5  | 44.6 | 45.0 | 45.5 | 44.6 | 1.3    | 1.2  |
| 전 세계   | 88.3 | 89.0 | 87.9 | 89.5 | 89.8 | 89.1 | 89.1  | 88.7 | 90.5 | 91.2 | 89.9 | 0.7    | 0.8  |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2

## 나. 세계 석유공급

2011년 세계 석유공급량은 88.5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1백만b/d 증가하였으나 세계 석유수요 보다는 0.6백만b/d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88.5백만b/d로 동 분기 석유수요보다 0.5백만b/d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분기에는 87.5백만b/d로 역시 같은 분기 석유수요를 0.4백만b/d 하회하였다. 3분기

에는 88.3백만b/d를 기록해 석유수요 대비 부족분의 격차가 1.2백만b/d까지 벌어졌으며 4분기에는 89.6백만b/d로 석유수요를 0.2백만b/d 가량 밑돌았다.

2011년 OPEC 석유공급<sup>7)</sup>은 35.8백만b/d로 전년대비 1.0백만b/d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원유생산량은 30.0백만b/d로 전년대비 0.5백만b/d 증가하였다. 분기별로 1분기 35.7백만b/d에서 리비아 내전이 본격화된 2분기에는 35.2백만b/d로 급감하였으며 사우디

7) 원유와 NGLs로 구성됨.

아라비아가 원유공급 보충에 나선 3분기에는 35.7백만b/d로 1분기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4분기에는 36.4백만b/d까지 확대되었다.

비OPEC의 2011년 석유공급은 52.7백만b/d로 전년대비 0.1백만b/d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1분기 52.7백만b/d에서 2분기 52.3백만b/d,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52.6백만b/d와 53.2백만b/d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OPEC 공급의 둔화는 북미지역의 오일샌드 및 셰일오일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상유전 누유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멕시코 만 해상유전 가동 차질, 예멘과 시리아 정정불안에 따른 석유생산 감소, 작황악화로 인한 바이오연료 생산 정체, 그리고 북해유전의 노후화 지속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해상유전 누유사고와 바이오 연료 생산의 둔화는 일시적인 공급차질로 2012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만 열대성 폭풍에 따른 유전가동 차질은 계절적으로 정례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2년에도 발생가능성을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멘과 시리아의 정정불안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시 올해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공급불안 요인이라 하겠다. 반면 북미지역의 비전통 원유의 생산 확대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과 회수율 증진 기술적용으로 노후유전의 생산 감소세 둔화, 중국과 남미, 그리고 러시아의 생산 증대 등은 올해 비OPEC 석유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비OPEC 석유공급은 전년대비 0.9백만b/d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0.5백만b/d의 공급증가로 가장 빠른 생산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구소련과 남미지역이 각각 0.1백만b/d의 공급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는 시리아와 예멘의 유혈사태 지속으로 석유기업 철수가 이어지고

〈표 5〉 세계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 구 분          | 2010 | 2011 |      |      |      |      | 2012* |      |      |      |      | 연간 증감*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1    | '12  |
| OPEC         | 34.8 | 35.7 | 35.2 | 35.7 | 36.4 | 35.8 | -     | -    | -    | -    | -    | 1.0    | -    |
| crude        | 29.5 | 30.0 | 29.5 | 29.9 | 30.5 | 30.0 | -     | -    | -    | -    | -    | 0.5    | -    |
| NGLs         | 5.3  | 5.7  | 5.7  | 5.8  | 5.9  | 5.8  | 6.1   | 6.2  | 6.5  | 6.5  | 6.3  | 0.5    | 0.5  |
| 비OPEC        | 52.6 | 52.7 | 52.3 | 52.6 | 53.2 | 52.7 | 53.2  | 53.4 | 53.7 | 54.3 | 53.6 | 0.1    | 0.9  |
| 총공급량         | 87.4 | 88.5 | 87.5 | 88.3 | 89.6 | 88.5 | -     | -    | -    | -    | -    | 1.1    | -    |
| Call on OPEC | 30.4 | 30.6 | 29.9 | 31.1 | 30.7 | 30.6 | 29.8  | 29.1 | 30.3 | 30.4 | 30.0 | 0.2    | -0.6 |

주: 1) \*는 전망치이며 OPEC 산유량은 생산쿼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전망하지 않음.

2) Call on OPEC은 전 세계 석유수요에서 비OPEC 공급량과 OPEC NGLs를 차감하여 산정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2

〈표 6〉 비OPEC 석유생산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b/d)

| 구 분     | 2010 | 2011 |      |      |      |      | 2012*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북미      | 14.1 | 14.4 | 14.3 | 14.5 | 15.0 | 14.5 | 15.0  | 14.9 | 14.9 | 15.2 | 15.0 |
| 유럽      | 4.1  | 4.1  | 3.8  | 3.6  | 3.8  | 3.8  | 3.8   | 3.7  | 3.7  | 3.9  | 3.8  |
| 태평양     | 0.6  | 0.5  | 0.5  | 0.5  | 0.6  | 0.5  | 0.6   | 0.6  | 0.7  | 0.7  | 0.7  |
| OECD    | 18.9 | 19.0 | 18.6 | 18.7 | 19.4 | 18.9 | 19.5  | 19.2 | 19.2 | 19.7 | 19.4 |
| 구소련     | 13.5 | 13.6 | 13.6 | 13.5 | 13.7 | 13.6 | 13.8  | 13.9 | 13.7 | 13.9 | 13.8 |
| 유럽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중국      | 4.1  | 4.2  | 4.2  | 4.1  | 4.1  | 4.1  | 4.1   | 4.2  | 4.1  | 4.2  | 4.2  |
| 기타아시아   | 3.7  | 3.6  | 3.5  | 3.5  | 3.6  | 3.5  | 3.6   | 3.5  | 3.5  | 3.5  | 3.5  |
| 남미      | 4.1  | 4.2  | 4.2  | 4.2  | 4.3  | 4.2  | 4.3   | 4.4  | 4.5  | 4.5  | 4.4  |
| 중동      | 1.7  | 1.8  | 1.6  | 1.7  | 1.5  | 1.6  | 1.6   | 1.5  | 1.6  | 1.6  | 1.6  |
| 아프리카    | 2.5  | 2.5  | 2.5  | 2.5  | 2.5  | 2.5  | 2.3   | 2.4  | 2.5  | 2.5  | 2.4  |
| 비OECD   | 29.8 | 30.1 | 29.7 | 29.6 | 29.8 | 29.8 | 29.8  | 30.0 | 30.0 | 30.3 | 30.0 |
| 정제처리    | 2.1  | 2.2  | 2.1  | 2.1  | 2.2  | 2.2  | 2.3   | 2.2  | 2.2  | 2.3  | 2.3  |
| 바이오연료   | 1.8  | 1.5  | 1.9  | 2.2  | 1.8  | 1.8  | 1.6   | 1.9  | 2.2  | 2.0  | 1.9  |
| 비OPEC 계 | 52.6 | 52.7 | 52.3 | 52.6 | 53.2 | 52.7 | 53.2  | 53.4 | 53.7 | 54.3 | 53.6 |

주: \*는 IEA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2

있어 전년대비 0.1백만b/d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원유생산은 유전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회수율 증진과 영국 신규유전 가동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오 연료 생산은 지난해 기후문제로 인한 사탕수수 및 옥수수 등의 원료작물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최소 0.1백만b/d 이상의 생산량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OPEC 원유생산을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비아 공급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9백만b/d 넘게 생산하여 전년대비 0.9백만b/d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면 이란이 3.6백만b/d로 전년대비 0.1백만b/d의 감소를 보였다. 원유매장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라크는 전년대비 0.3백만b/d 증가한 2.7백만b/d의 원유를 생산하여 사우디 다음으로 높은 원유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국가들과 나

이지리아, 알제리 등 리비아, 앙골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고유가 지속에 따라 원유생산을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리비아는 민주화 시위가 반정부군과 정부군 간 내전으로 번지면서 2분기부터 원유생산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내전이 9월에 종료되면서 10월부터 생산시설 복구에 들어가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전년대비 1.1백만b/d 감소한 평균 0.5백만b/d를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1월 OPEC 석유생산량은 37.0백만b/d로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원유생산량은 30.9백만b/d로 역시 작년 4분기 증가세를 연장해가고 있다.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1.0백만b/d까지 확대되어 전쟁 이전의 생산량의 75%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사우디는 9.6백만b/d를 생산하여 리비아의 생산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월의 높은 생산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월 전체 OPEC 원유생산량은 지난 12월 총회에

〈표 7〉 OPEC 석유생산 추이

(단위: 백만b/d)

| 구 분    | 2010  | 2011  |       |       |       | 2012  |
|--------|-------|-------|-------|-------|-------|-------|
|        |       | 연간    | 4/4   | 11월   | 12월   | 1월    |
| 사우디    | 8.13  | 9.05  | 9.38  | 9.45  | 9.55  | 9.55  |
| 이란     | 3.70  | 3.58  | 3.51  | 3.55  | 3.45  | 3.45  |
| 이라크    | 2.36  | 2.67  | 2.68  | 2.68  | 2.69  | 2.65  |
| UAE    | 2.31  | 2.50  | 2.54  | 2.52  | 2.58  | 2.58  |
| 쿠웨이트   | 2.03  | 2.21  | 2.34  | 2.37  | 2.30  | 2.26  |
| 중립지역   | 0.53  | 0.59  | 0.60  | 0.60  | 0.60  | 0.60  |
| 카타르    | 0.80  | 0.82  | 0.82  | 0.82  | 0.82  | 0.82  |
| 앙골라    | 1.73  | 1.64  | 1.72  | 1.69  | 1.75  | 1.73  |
| 나이지리아  | 2.08  | 2.18  | 2.06  | 2.10  | 2.06  | 2.04  |
| 리비아    | 1.55  | 0.46  | 0.55  | 0.55  | 0.75  | 0.98  |
| 알제리    | 1.25  | 1.28  | 1.29  | 1.29  | 1.29  | 1.29  |
| 에콰도르   | 0.47  | 0.50  | 0.49  | 0.50  | 0.48  | 0.48  |
| 베네수엘라  | 2.53  | 2.52  | 2.52  | 2.53  | 2.50  | 2.48  |
| 총 원유생산 | 29.49 | 29.99 | 30.51 | 30.64 | 30.82 | 30.90 |
| NGLs   | 5.34  | 5.78  | 5.91  | 5.91  | 5.91  | 6.14  |
| 총 생산   | 34.84 | 35.77 | 36.41 | 36.55 | 36.72 | 37.04 |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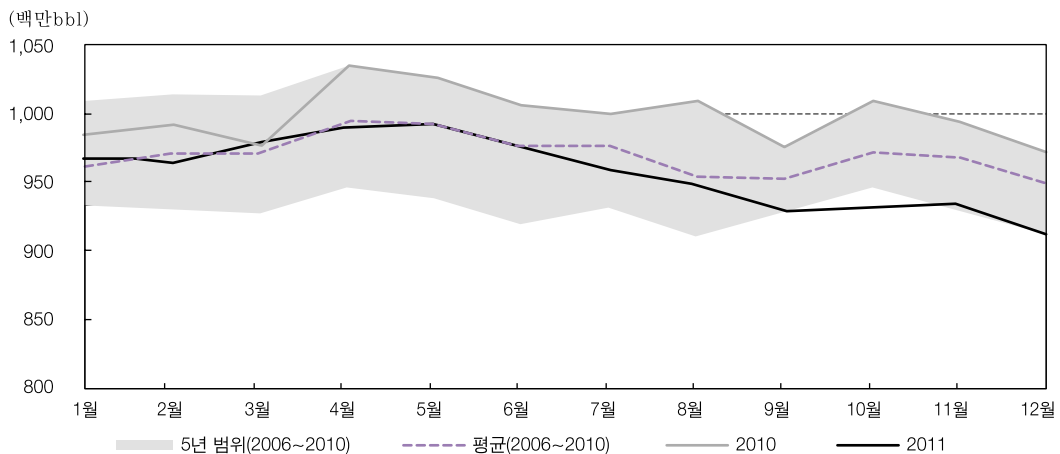
서 의결한 생산쿼터 30.0백만b/d를 약 1백만b/d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가 상승세가 이란 사태 등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회원국들의 생산쿼터 준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회원국들 간 증산경쟁으로 OPEC 생산량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 다. OECD 석유재고 동향

2011년 OECD 국가들의 전체 석유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2010년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석유제품 재고의 경우 5년 평균치(2006~2010) 수준을 맴도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원유재고의 경우에는 5년 최저치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해 지속되었던 석유공급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리비아의 원유공급이 전면 중단되기 시작한 3분기에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먼저 OECD 원유재고를 살펴보면 1월에 5년 평균치(963백만 배럴)를 소폭 상회한 967백만 배럴을 나타냈으나 6월에는 977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5년 평균치 979백만 배럴을 하회하기 시작하였다. 9월에는 932백만 배럴로 5년 평균치(953백만 배럴)를 20백만 배럴 하회하였으며 12월에는 913백만 배럴로 5년 평균치와의 격차가 30백만 배럴까지 벌어졌다. 한편, 12월에 기록한 원유재고 수준은 2007년에 기록한 5년 최저치인 912백만 배럴과 비슷한 수준으로 리비아 원유생산 중단 및 북해 원유생산 감소로 인해 유럽 OECD 주요 국가들이 원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석유화력발전의 대체 가동으로 석유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던 것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9월 북대서양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멕시코 만 원유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점도 OECD 원유재고 확충에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

[그림 3] OECD 원유재고 추이



자료: IEA

였으며, 북미지역에서는 석유소비 둔화와 오일샌드 및 셰일오일 등의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로 감소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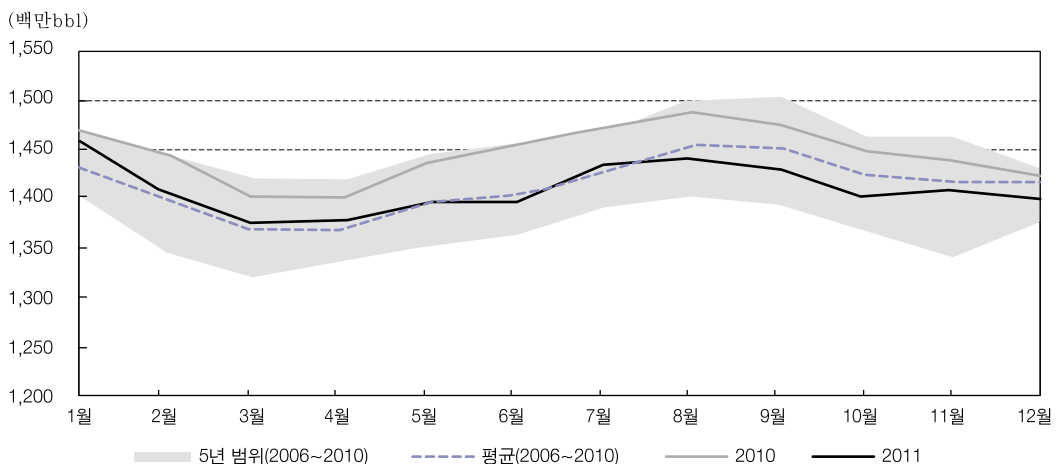
OECD 총 석유제품재고 역시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부터 5년 평균치를 하회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원유재고에 비해서는 5년 평균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유수급 차질로 주요국들의 정제시설 가동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미지역과 서부와 남부 유럽의 석유제품 소비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월에 1,458백만 배럴로 전년 동월대비 9백만 배럴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치인 1,430백만 배럴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5월에 1,396백만 배럴로 5년 평균치(1,394백만 배럴) 수준을 보였으며 6월에는 1,397백만 배럴로 2011년에 처음으로 5년 평균치(1,404백만 배럴)를 하회하기 시작

했다. 이후 전년 동월대비와 5년 평균치 대비 감소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었으며, 9월에는 5년 평균치보다 24백만 배럴까지 감소한 1,427백만 배럴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3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겨울철을 대비한 정제시설 가동 확대에 따라 11월에는 1,414백만 배럴로 5년 평균치 수준(1,419백만 배럴)으로 회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12월에는 1,403백만 배럴로 감소세를 보여 5년 평균치(1,417백만 배럴)와의 격차를 14백만 배럴로 벌렸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석유제품 재고는 전반적인 정제시설 가동 확대로 인해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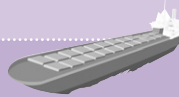
### 3. 2012년 석유시장 전망

Energy Intelligence에 따르면 1월 세계 석유공급

[그림 4] OECD 석유제품재고 추이



자료: IEA



이 90.4백만b/d로 수요보다 2.1백만b/d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수급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란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데다 이란 산 원유 금수조치의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급차질에 대한 석유소비국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유가 상승의 기폭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수급적인 요인만으로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석유시장에서의 최근 실질적인 수급구조는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과 달리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국제 유동성이 석유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지정학적 기폭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석유수급은 지난 2년 간(2010년과 2011년) 공급 부족을 겪어왔다. IEA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에 석유수요가 공급보다 각각 0.9백만b/d와 0.6백만b/d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재고량도 원유와 석유제품을 합하여 약 5억 5천만 배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9년 당시 재고수준이 금융위기 직후 세계 석유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다른 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년 간 재고감소분을 모두 보충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난해 6월에 결정된 IEA의 비축유 방출분(6천만 배럴)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감소분 중 절반 정도인 3억 배럴 정도의 석유재고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종 에너지관련 기관에서 보여주는 통계치와 달리 석유시장에서는 재고수요를 포함한 석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때문에 각종 통계치가 보여주는 수급상황보다 실제 수급상황은 보다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제 상품시장이 실물경제 둔화의 장기화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세계 저금리 기초의 장기화와 미국의 두 차례 양적완화로 빚어진 풍부한 유동성이 국제 상품시장에 유입되었다. 특히 최근 석유시장은 지정학적 변수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유동성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시장과는 달리 석유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국 올해 석유시장은 앞서 언급된 두가지 요인에 의해 고유가가 지지되는 가운데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가 모색하는 해법의 방향과 유럽 채무위기의 전개 양상,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유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란 문제는 올해 상반기 석유시장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이란 산 원유제재를 위한 조치가 하반기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석유시장의 수급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내에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우려하는 서방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이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중동국가들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서방국가들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기는 불가능하며 미국 역시 하반기 대선일정과 재정상황,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군사적 개입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4월과 6월 사이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정보가 미국 국방부에 의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군사작전에 대한 부담감과 아랍권의 종교적 반발 예상, 그리고

〈표 8〉 주요기관별 2012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 전망<br>기관        | 기준<br>유종       |      | 2011  | 2012  |       |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 CGES<br>(*12.1) | 브렌트<br>(Dated) | 기준유가 | 112.2 | 107.0 | 110.8 | 109.8 | 105.8 | 101.7 |
|                 |                | 고유가  | 112.2 | 128.3 | 115.0 | 122.3 | 131.6 | 144.4 |
|                 |                | 저유가  | 112.2 | 88.1  | 108.0 | 99.0  | 82.3  | 63.2  |
| EIA(*12.2)      | WTI            |      | 94.9  | 100.4 | 100.1 | 100.0 | 100.5 | 101.0 |
| CERA<br>(*12.2) | 두바이            |      | 106.2 | 117.6 | 118.4 | 120.6 | 115.1 | 116.1 |
|                 | 브렌트            |      | 111.3 | 120.7 | 120.5 | 123.7 | 119.5 | 119.0 |
|                 | WTI            |      | 95.0  | 104.4 | 104.8 | 102.7 | 103.2 | 107.0 |
| PIRA<br>(*12.1) | 브렌트            |      | 111.3 | 117.9 | 113.4 | 117.4 | 118.0 | 122.7 |
|                 | WTI            |      | 95.1  | 111.7 | 102.7 | 112.2 | 114.4 | 117.6 |

주: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ERA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이란 핵시설의 요새화로 실효적 타격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이란과 서방국가 간 핵협상이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가 석유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협상 결렬 시 하반기 이란 원유제재의 실질적 발효와 더불어 군사적 긴장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란 원유제재가 발효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석유시장의 변동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국가들과 이란 간 핵협상과 관련한 우려와 기대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동

안의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10~120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세계 경제의 회복은 더욱 더뎠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 석유수요도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고유가 추세가 공급상황에 기초하기 보다는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에 진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제유가로 인한 세계 물가수준이 어느 임계점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2008년 하반기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혼란과 더불어 유가의 폭락사태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상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전망」, 정책연구자료, 2012.2

[www.petronet.co.kr](http://www.petronet.co.kr)

### 〈외국 문헌〉

CERA, Global Oil Prices and Margins, 2012.

2.29

——, “Hormuz Handicap—Assessing Iran’s  
Threat to Global Supply,” 2012.1.20.

Energy Intelligence Briefing, 2012.2.3

IEA, “Oil Market Report,” 2012.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1.24

[www.eia.doe.gov](http://www.eia.doe.gov)